

연구논단

중국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趙 政 男
<고대교수 정치학>

1. 서 론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전통적인 다민족 국가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왕조를 거듭하면서 이민족 지배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특유의 다민족사회를 만들어 왔고 1949년 혁명과 더불어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도 이른바 통일적 다민족 공존체제를 발전시키려 애쓰고 있다. 이렇듯 다민족들 간의 평화로운 공존구도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중국이기는 하나 그들이 내포하고 있는 민족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 내용 또한 대단히 이질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서 오는 민족갈등은 좀처럼 생각대로 순조로운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많은 소수민족 집단들이 오랫동안 누적시켜온 민족적 이해의 대립구도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大漢族主義에 대한 소수민족 집단들의 뿌리깊은 반발,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로 표출되고 있는 漢族 거주지역과 소수민족 거주지 간의 경제발전의 현저한 격차, 다양한 사회분야의 인재 충원과정에서의 민족차별의 존재, 개별적인 민족 신앙에 대한 박해 등과 같은 갖가지 민족갈등의 소지가 누적되어 오고 있고, 특히 개혁개방의 와중에서는 이같은 민족적 갈등이 점점 뚜렷하게 표출되면서 과도기적 정치상황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中國系들 즉 ‘화교’들의 문제가 또 다른 중국의 민족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인들은 대단히 오래전부터 자기들의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먼 이역으로 흩어져 생활해 온 긴 이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교포를 가진 나라가 중국이다. 해외생활자들의 대부분이 중국에서의 생활고를 해외생활을 통해 극복해 보려고 했고, 더러는 자기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더러는 강제적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그곳에서 중국인의 피와 문화를 나름대로 이어가면서 광

범한 화교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 살고 있는 중국인, 대만과 홍콩, 마카오 등 인근 중화권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그리고 이 밖의 세계 각처에서 거주국의 어엿한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화인’ 등 전세계에 널리 산재해 있는 중국계 인구는 실로 다양하나 이들 모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같이 ‘中華系’인구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이들 중화인들은 탈냉전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환경을 맞이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이 과거에 보였던 현지 정착 우선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이제는 거주국에서 누리고 있는 경제적 여유를 발판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오늘의 중국을 생각하면서 중국의 민족상황,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중국의 해외화교들의 문제에 눈을 돌리는 것은 이들이 가지는 현재적인 의미보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이들의 역할 때문이다. 당장은 중국인들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위협적인 역할을 구체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해외 중국계들이 그들의 민족적 동질성 마련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생존만을 위해서 인내하고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들의 피의 유별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지 않던 그들이 최근에 이르러 서서히 직, 간접적인 민족적 활동을 국내외적으로 시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이러한 새로운 행보에는 경제력이 밀받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지는 의미 또한 유별나다.

새롭게 세계적인 범위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계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고난의 민족사를 마감하고 중화민족의 민족적 르네상스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민족적 시련과 분열로 작용할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것은 어쩌면 그들 해외 중국계들의 민족적인 각성이나 민족의식에 따른 문제이기 이전에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들의 모국인 중국의 개혁개방이라는 엄청난 세기적 실험의 결과가 미치는 역할이 더욱 결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히 국내외적으로 중국인들의 움직임은 최근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그 움직임의 하나의 축은 해외화교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중화 경제권’의 창설과 연관된 새로운 중화민족의 민족적 네트워크 수립을 위한 노력이고, 또 다른 하나의 축은 중국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민족이동과 또 개방화의 물결을 따라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신화교’로 지칭되는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해외탈출과 해외화교들의 새로운 이동이 그것이다. 전자가 중화민족 생생의 푸른 신호라면, 후자는 중화민족 분열의 새로운 불씨라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중국의 민족문제 가운데에서도 특히 그들 민족질서의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해외 중국인’ 즉 ‘華僑’와 ‘華人’들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이를 통하여 중화민족의 새로운 움직임의 개요를 살펴과 동시에 이 민족질서가 만

들어 내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짚어 보려 한다. 이는 단순히 해외 중국인 문제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뿐 아니라, 향후 중국과 중국세의 구체적인 전망과 이해를 위해서도 빠뜨릴 수 없는 작업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 해외 중국인 현황

2-1. 해외 중국인의 유형

‘해외 중국인’ 즉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국계 인구를 지칭할 때도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통칭하지 않고 보다 세분화하여 호칭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인구는 이주의 역사도 길고, 또 이주 경위나 그곳에서의 국적 상황도 서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명칭으로 단일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외 중국계 사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는 ‘華僑’라는 개념이다. 해외 중국계를 지칭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말은 처음에는 해외 중국계 전체를 통칭하는 개념이었으나 근래 들어 보다 한정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화교’는 당초 중국에서 태어났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국을 떠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들 중에서 현지 생활을 하면서도 중국말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적도 거주국 국적이 아니라 중국의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임시적으로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중국교포들을 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화교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은 주로 중국인 1세들이 대부분이고 그 숫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¹⁾

다음은 ‘華人’이라는 개념이다. 이들은 태어난 곳도 중국이 아니며 현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국적도 중국적이 아니라, 현지 국적을 취득하여 그곳 시민으로 정착하여 살고 있는(임시적이 아닌)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이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라난 ‘화교’ 2-3세들이다. 예컨데 중국계 미국인, 중국계 말레이지아인들이 그들이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해외에 살고 있는 전체 중국인들 중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다.²⁾

1) ‘華僑’는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海外同胞’ 또는 ‘華胞’로 지칭한다. 陸培春,「華人網絡」,(日本, DHC, 1995), 27面

2) 이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계 가운데 ‘화교’도 ‘화인’도 아닌 중국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은 ‘華族’과 ‘華裔’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화족’은 이중국적, 다국적, 무국적, 국적불명자 등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한다. 이는 중국 국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나, 싱카풀이나 말레이지아 등의 화교사회에서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화교’와 ‘화인’에 관한 중국의 보다 공식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화교’는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해외에 살고 있으나 여전히 중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범되었을 때에는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화인’은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화교’와 다를 바 없으나, 이들은 현지의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범당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정부의 보호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도 중국인으로서의 공동의 민족적 입장에서 어떤 종류의 원조를 받을 수 있기는 하다. 그리고 또 이들도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을 버리고 중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³⁾

중국의 공식입장을 다시 정리하면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중국계들은 ‘중화민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서 다른 외국인들과는 다른 민족적인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특히 ‘화교’는 ‘중화민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경우는 대륙에 살고 있는 중국인이나, 이밖에 대만이나 또 곧 중국에 통합될 홍콩이나 마카오 등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과 민족적인 차별성이 없으며, ‘화인’들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현재는 비록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화민족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원하기만 하면 이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타 외국인들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들은 그들이 현재 살고있는 지역도 다양하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나 종교 또한 다양하며, 심지어는 국적마저 다양한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러한 여러가지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공통 요소로 볼 때 이들은 여전히 ‘中華民族’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그리고 ‘화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의 자손으로 중화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가장 민족적인 연계가 회박한 부류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선조가 5대 이상 현 거주국에 살아왔던 집안의 후예면 이들을 ‘화예’라고 칭하고 그 보다 역사가 짧으면 이를 ‘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에서 오래 전부터 살고 그곳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국계 중에서도 중화민족의 의식과 감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인’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들 가운데 전혀 그런 의식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화예’라고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3) 陳碧笙, 「世界華僑華人簡史」,(中國, 履門大學出版社, 1991)

이상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족개념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中華民族’이다. 중화계 인구들은 현재 중국대륙이나 대만에 살고 있는 가장 순수한 의미의 중국인들을 비롯, 이들과는 다소의 거리를 두고 있으나 중국인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생활해 오고 있는 홍콩, 마카오 등 인근 중화권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 그리고 이들과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동남아를 비롯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화교’들과 또 국적을 달리하여 거주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교의 자손들인 ‘화인’, ‘화예’ 등과 같이 동일한 민족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분류가 가능한 분화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이런 다기한 분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中華民族’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민족개념에 함께 포용될 수 있다. 그 만큼 이 개념은 위에서 언급한 갖가지 국내외 중국인들을 지칭하는 개별적이고 다양한 개념단위 보다는 포괄적이며 또 상위개념이자 이는 또 독특한 다민족공존과 민족대단결의 가치를 널리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이 설계하고 있는 민족공존 구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中華民族’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清末 民國 초반이다. 특히 이 시기 孫文은 「孫中山全集」에 실린 한 연설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非滿族인 중국인 중에 민족주의정신을 발양시켜야 한다. 이것은 우리 화인(我華生)들의 책임이다. 이러한 정신을 환기하여 中華民族은 반드시 스스로의 역량으로 滿清王朝를 제압하고 영원히 타도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漢族과 동의어로써 ‘中華民族’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⁴⁾

20세기 초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한 ‘중화민족’의 개념은 그 후 개량파 지식의 한 사람이었던 梁啓超에 의해 복합적인 민족개념으로 ‘중화민족’이 다시 분명하게 정의된다. 그는 1906년 ‘현재의 중화민족, 즉 漢族’이란 처음부터 하나의 민족이었는가 아니면 다수민족들이 혼합되어 이루어 졌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의 중화민족은 처음부터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고 다수민족이 혼합되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⁵⁾

이 당시의 선진 지식인들이 보인 ‘中華’의 개념은 다분히 滿, 漢과 같은 종족의 구분이 전재된 것이었으며, 특히 이는 漢族 중심의 종족통합의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는 발전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911년 청조의 멸망과 더불어 ‘與漢人平等’, 즉 滿, 蒙, 回, 藏 등의 각 족은 ‘漢族과 평등하다’는 이른바 ‘五族共和論’이 당시 ‘中華民族’이

4) 廣東省社會科學院歷史研究室,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中華民國史研究室, 中山大學歷史系中山研究室 合編, 「附 : 在檀香山正埠的演說」,(1903.12.中旬), 「孫中山全集」第1卷 (中國 北京, 中華書局, 1981), 227면

5) 「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1906), 「飲水室全集」第1冊(臺北, 中華書局, 1972), 2-4面

라는 개념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후 1919년 손문은 ‘민족의 통일’, ‘한족 중심의 민족동화’를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 ‘중화민족의 신주의’라는 논리를 제기하여 복합적인 중화개념을 더욱 분명히 했다. 그러나 5.4운동 이후 중국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민족이론을 수용한 뒤로는 이 개념이 다분히 중국내 살고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의 민족적 이익을 고려한다는 명분적 의미를 더욱 강하게 내포하는 개념으로 조작되어 갔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된 ‘중화민족’의 개념은 현재에 이르러서는 종래 사회주의 중국이 견지해 온 중국내의 소수민족들을 동화시키는 하나의 포괄적인 개념단위에서 더욱 발전되어 전 세계에 훑어져 살고 있는 다양한 중국계 사람들까지를 다 함께 포용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통합적인 민족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중국인들의 해외이주 경과

중국인들이 자기가 태어나 자라던 고장을 떠나 外地로 나가 산 역사는 대단히 오래다. 물론 당시의 외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치체를 떠나 또 다른 별개의 독립된 통치체로의 이주를 말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기존에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 먼 변방 내지는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기록은 중국인들의 외지로의 이주는 옛 商, 周시대까지 소급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⁶⁾

隋나라(581-618)의 역사서인 「隋書」에는 동진(318-420)초기 강남지방에서는 북방에서 남방으로 새로 이주 한 사람을 ‘僑人’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새롭게 이주한 장소에 북방의 고향 이름을 붙인 縣이나 郡을 설치하고 이것을 ‘僑立’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여기서 ‘교인’이나 ‘교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학교’와 동일한 개념일 수는 없다. 그러나 ‘僑’라고 하는 개념은 이때부터 이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전해져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바로 고향을 멀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 살면서도 고향을 결코 잊지는 않는다고 하는 의미까지를 내포하면서 이어져 왔다.⁷⁾

이렇게 볼 때 학교, 학인이라고 하는 현상은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해외에 이주하기 시작한 이전부터 중국의 판도 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은 국내에서의 다양한 이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런 면에서 중국인들에 있어 이주라는 것은 조국을 떠난다거나 또는 조국을 버리고 외국을 선택한다는 의미에 앞서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중국적인 의식과 중국적인 문화의 공간

6) 鄭學益, 「20世紀海外華人風采錄」,(中國, 青島出版社, 1992)

7) 木通泉克夫, 「華僑の挑戦」,(日本, Japan Times, 1994), 38-45面

을 그 만큼 더 확대해 간다고 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듯 동진시대에 나타났던 중국인들의 강남북 간의 이동은 그 후 근현대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해외이주의 선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화교’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중국인들의 국내 집단이동 파도가 해외까지 확대되면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으며, 또 ‘화인’이라고 하는 현상은 이들 화교들이 해외 현지에 정착하여 생활의 본거지를 그곳으로 삼은데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대대적인 해외진출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대표적인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은 13세기 말 元이 자바에 원정하였을 때로, 원정은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이 당시 원정에 참가했던 많은 병사들의 현지에 남아 현대 동남아화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기원 전 13-4세기 宋이 元에 멍망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타이 등 동남아로 이주한 사실이 있고, 그 후 15-17세기에 걸쳐서는 明의 이민이 말레이지아와 베트남 지역에 대거 들어갔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본격적인 해외이주가 시작된 것은 역시 서구 식민세력들이 그들의 광대한 식민지 경영을 위하여 값싸고 양질의 노동력을 대량으로 필요로 했던 18세기 말 경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부터 이른바 ‘華工’으로 불리우는 중국인 노동자들이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나라로 빠져 나가게 되었으며, 이런 경로로 빠져나간 이들이 바로 오늘날의 ‘화교’, ‘화인’들의 선조다.

동남아에서의 ‘화공’이라고 불리워지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진출은 1785년부터 시작됐다. 이 해 말레이지아 중앙부를 점령한 영국은 이곳을 개발키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 노동력을 중국 노동자의 강제적 투입으로 해결했고 이 때가 중국인들이 노동자로써 동남아시아에 대량으로 이주하게 된 최초의 일로 볼 수 있다. 그 후 1800년 초에도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광주에 가지고 있던 광주상관의 매판상인을 통하여 광동성내의 여러 곳으로부터 수 차례 노동자들을 밀수출시켰다. 또 1819년 영국이 싱가폴을 점령, 이를 개발키 위해 많은 중국인 노동자 즉 ‘華工’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다른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도 또 이들의 노동력에 의해 개발이 촉진되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식민지이었던 미대륙 등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마침 구미 각국의 잇다른 노예해방에 따라 흑인 노예들의 매매가 없어지게 되면서 노동력의 공백을 중국인 노동자들로 충당하려 했다. 더욱이 당시는 또 청조의 부폐가 극에 달해, 경제는 대단히 피폐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계속되어 왔던 국민들의 출국금지, 즉 아편전쟁 전의 쇄국령이 그 효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대대적인 해외이주에 큰 작용을 하기도 했다.⁸⁾

8) 陸培春,「華人脈絡」, 136面

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인들의 해외이주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중계하는 조직이 커다란 역할을 했다. 명, 청대에 있어 복건이나 광동지방에서는 동향이나 동족집단 안에서 泉州나 章州 등으로부터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출국시 중개인인 이른바 ‘客頭’와 알선료와 배삯을 나중에 외국에서 벌어서 갚기로 계약하고 고향을 떠나는 노동자들이었다. 그 후 이것이 변해서 ‘契約華工制’가 되었으나, 동남아시아 식민지에서 화공들의 수요가 증대하는데 따라 이 제도가 중계업자들에 폭리를 가져다 주는 착취조직으로 변했는데 당시의 이 ‘객두’가 오늘날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알선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이른바 ‘蛇頭’의 선조격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 동남아 각지와 광주, 마카오 등의 불법조직에 의해서 출국하는 화공을 ‘豬仔’라고 부르고 이들의 송출을 ‘豬仔貿易’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당시는 싱가폴이 ‘저자무역’의 중심지로 중국인 노동자들의 노릇을 특특히 했다. 식민지 당국은 ‘華民政務司’(Chinese Protectorate)를 두고 이를 통해 이들 저자들을 수용하는 ‘저자관’(정식 명칭은 ‘객관’)을 싱가폴에 건설 운영하기도 했다. 1823년에는 싱가폴에만 2-30개의 저자관이 있었으며, 해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계약화공제가 그후 미국과 여타 지방 화공 수출의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⁹⁾

이렇듯 식민지 열강들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노동력 확보의 술책에 관계되어 중국인 노동자들이 해외이주가 본격화 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형태는 다양화 되어갔으나, 많은 중국인들이 값싼 노동력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 중국 노동자들은 미국에서의 철도공사, 브라질에서의 커피재배, 파나마에서 운하건설, 카나다에서 목장노동, 큐바에서 사탕수수 재배, 인도네시아의 고무농장 오스틀라리아에서 담배재배 등 다양한 노동에 종사하면 해외 이주 1세대를 형성해 나갔다.

명대말기로부터 아편전쟁까지 약 3백년간 수십만에서 1백만 전후에 머물렀던 해외이주 중국인들의 수는 그 후 19세기중엽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 1879년에 300만 명, 99년에 400만명, 1905년 760만명, 21년 860만명, 31년 1,283만명 등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50년 간에 4배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인 노동자들의 강제송출은 1930년대에 이르러 서서히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는 세계공황이 발생하여 각지에 실업자가 생겨나면서 더 이상 화공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으며, 또 산업기술의 발달과 기계화의 진척으로 대량의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또 해외 자본주의 각국들이 중국 투자를 활발히 하여 중국 각지에서 산업

9) 이러한 ‘저자무역’과는 또 다른 이른바 ‘苦力貿易’이라고 하는 중국인 노동자 송출 시스템도 있었다.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유럽세력 중에서는 중국 연해지방의 항구 도시에 침입하여, 직접 화공들을 강제적으로 데려 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이른바 ‘고역무역’이다.

시설이나 철도 건설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이를 위해서 많은 현지 노동력이 필요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 식민지세력의 희생양으로서의 화공무역이라고 하는 현상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꼭 화공무역의 형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인들의 해외 이주의 추세는 1949년 중국혁명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어 왔고 특히 최근의 개혁개방의 상황에서는 또 한차례우나 해외이주 러시를 맞이하고 있다.¹⁰⁾

< 세계 중국계 인구 변화 상황 >

구 분	연 도	50년도 초기 (만 명)	80년대 말기 (만 명)	증 감 상 황 (+, -)
세 계		1266.5	2726.0	+ 115.2
동 남 아 시 아		1220.0	2330.5	+ 91.0
인 도 지 나	베트남	150.0	100.0	- 33.3
	캄보디아	24.3	30.0	+ 23.5
	라오즈	1.0	1.0	0
미 얀 마		35.0	85.0	+ 142.8
A S E A N	말레이시아	236.2	520.0	+ 120.2
	싱가폴	100.0	209.0	+ 109.0
	타이	350.0	610.0	+ 74.3
	인도네시아	270.0	650.0	+ 140.7
	필리핀	50.0	120.0	+ 140.0
	브루네이	2.5	5.5	+ 120.0
기타 아시아		13.6	38.5	+ 183.1
미주(남미, 북미, 중미)		17.7	232.0	+ 1210.7
유럽		3.7	87.0	+ 1426.3
아프리카		6.5	9.0	+ 38.5
호 주		3.0	29.0	+ 866.7

* <출처> 李原, 陳大隆 編著, 「海外華人及其居住地概況」,
(中國. 中國華僑出版公社, 1991)

2-3. 해외 중국인들의 수

인구 수로 보면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인들의 총수는 대체로 3천만명 정도로 추

10) 목통泉克夫, 「華僑의 挑戰」, 앞의 책, 65-93면

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국적을 여전히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이 가운데 2백만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화인’들로 이들이 전체 해외 중국계의 약 9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중국계인 홍콩, 마카오의 650만, 대만의 2천1백만 등 2천 8백만을 포함하면 중국대륙 이외에 생활하고 있는 전체 중국계 인구는 약 6천만명에 가깝다. 그리고 또 중국 내에 살고 있는 화교친척과 귀국화교들의 수가 또 약 3천만정도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까지 합치면 화교계 총인구는 약 9천만명으로 합산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대륙에 살고 있는 인구까지를 포함하면 전세계에 살고 있는 중국계의 총 인구는 12억 5천만 정도로 이는 세계인구의 약 1/4정도다.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중국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시아로 총 해외 중국계 인구의 약 8할 이상이 이 지역에 모여살고 있고 있으나, 최근에는 거주 분포가 점차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다. 이들 중국계 인구를 국가별로 보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로 약 6백만명, 다음은 타이의 5백만명, 말레이지아 4백70만명, 싱가폴 2백만명, 미국 2백만명, 필리핀과 베트남이 각각 약 1백만, 미얀마 80만명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약 2,400만명(전체의 87%)이 아시아 지역에, 230만명(8.5%)이 북미나 중남미에, 87만(3.2%)이 유럽에, 약 30만(1%)이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에, 9만(0.3%)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세계에 산재해 있는 중국계 인구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총 인구의 0.66%에 상당하는 것으로, 아시아에서는 전체인구의 1.3%를, 남태평양, 오세아니아에서는 1.1%를, 북미, 중남미에서는 0.3%를, 유럽에서는 0.1%를, 아프리카에서는 0.02%를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교, 화인들의 거주국에서의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은 싱가폴이 76%로 최다, 이어 말레이지아 30.5%, 10%이상을 점하고 있는 나라를 들면 브르네이(23%), 다히티(20%), 사이판(12%), 타이(11%) 등의 순이다. 그리고 도시별로 볼때는 싱가폴이 209만명으로 가장 많고, 70년대 중반 사이판이 110만(지금은 70만명 전후)등이며, 50만 이상의 도시가 쟈카르타, 방콕, 마니라, 쿠아라룸풀 등이다.¹¹⁾

2-4. 화교의 선구자 ‘客家’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 인구를 생각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이른바 ‘客家’로 불리우는 특유의 종족집단이다. ‘태양이 있는 곳에 중국인들이 있고, 중국인들이 있는 곳에 객가들이 있다’(有太陽的地方, 就有中國人. 有中國人的地方, 就有客家人)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 사회에서 객가인들의 존재가 특이하며, 이러한 현상은 해외 중국인

11) 「華僑の挑戦」, 90- 96面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객가들은 중국에서는 廣東, 福建, 江西 3성에 省境일대를 중심으로 광동의 중심인 珠江델타地域, 특히 광서, 사천, 해남도, 호남, 귀주 등에 분포되어 있다. 중국 국내에 살고 있는 객가들과 대만성에 살고 있는 객가들을 합친 인구는 총 4천만명, 그리고 홍콩에 약 2백만명, 그리고 동남아를 비롯한 세계각지에 약 3백만명 등 전체 약 4천5백만으로 추산되는 수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객가들은 전체 해외 중국계 총수 3천만명의 약 1/10에 해당하며 이는 해외 중국계 중에서 广東, 潮州, 福建성 출신에 이은 숫자다.

객가들은 당초 약 2천년전 중화문명의 중심이었던 중원지방(황하중유역)에서 생활해 왔으나 4세기 전후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북방 이민족들의 침입, 왕조 교체기의 전란, 정치적 억압,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 사회적 불안이 겹쳐 고향을 등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바 ‘流人’이 되어 북으로부터 남쪽으로 이동을 계속했다.

이렇듯 당초 자기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남하한 이들은 선주민들인 타종족집단들과 대립, 항쟁을 계속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광동, 강서, 복건 등의 3성 경계선 일대를 중심으로 서쪽은 사천, 동은 대만, 남은 해남도와 남중국 각지에 정착하게 되었다. 이들 민족집단은 宋代(960-1279)에 광동일대에서 호적을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방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을 ‘主籍’이라고 하고, 후에 유입된 이들 流人들을 ‘客籍’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데서 이들을 ‘客家’ 또는 ‘客家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리고 미리부터 살고 있던 ‘주적’들이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객가들은 소유자가 없는 쓸모없는 토지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척박한 토지에 살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근면, 절약하고 단결심과 의협심이 강하고 용감하면서도 어려움을 잘 참아내는 ‘한족중에서 가장 용감하며 진보적인’, ‘중화민족의 정수’ 등과 같은 수식어에 어울리는 독특한 객가인들의 성격이 형성되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남자는 외지에서 생겨유지를 위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또 남녀가 평등하게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유일한 재산’이 교육이라고 생각, 자녀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그 많은 수가 의사, 군인, 경관, 고사 저널리스트 등 전문직종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19세기에 들어 도항금지 조치가 해제되자, 베트남, 타이,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진출, 현재는 인도네시아(50만명), 타이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30만명, 싱가폴(20만명), 미얀마(10만명), 그리고 영국(10만명), 모리셔스(3만명)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객가계의 화교 화인들이 세계각지에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은 1971년에는 홍콩에서 ‘世界客屬懇親代表大會’의 제1회 대회를 열었고, 그 후 세계 각지로 옮겨가면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고 있다. 이 모임은 세계 화교 화인 들 중에서 최초의 국제적

인 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조직이 세계 화교들의 새로운 결집을 이루어내는데 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²⁾

2-5. 신화교

중국이 1970년대 들어 개혁개방정책을 펼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진출이 자연스럽게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또 다시 많은 중국인들의 해외진출 러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번의 새로운 중국인들의 이동은 중국대륙에 국한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대만, 홍콩 등지의 중국계 인구가 전면적인 이동을 하는 상황으로 발전되었고, 오래전부터 동남아에 정착해 있던 중국계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의 재이민 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렇듯 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인들이 새로운 이동에 따른 유입을 일반적으로 ‘新華僑’로 지칭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수는 대체적으로 약 160 -180만 정도로 추산된다.¹³⁾

신화교의 움직임은 과거 중국인들의 해외진출과는 내용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거와는 달리 이들은 대개 해외에서 유학을 한 후 그 자리에 눌러앉아 생활하거나 또는 해외 가족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보다 유리한 경제환경을 찾는 ‘투자이민’, ‘상업이민’ 등이 대중이며 이들은 또 전적으로 자의적이고 의도적인 외국행이라고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들이 택하는 이민 대상국도 하나같이 부유한 나라들이며 가난한 나라는 거의 없다. 그리고 이들의 학력도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이민 전의 경제적인 상태도 좋은 편이다. 다만 이 중에서 대륙출신 이민자들은 여전히 대만이나 홍콩 등 여타지역에 비해서 교육수준도 낮고 이민전의 경제적인 여건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특히 신화교 물결은 중국의 개혁개방 본격화는 물론 홍콩이 1997년 7월을 기해서 중국에 반환되는 것에 따른 홍콩인들의 대대적인 해외이주가 이를 크게 부채질 하고 있다.¹⁴⁾ 한 통계는 중국대륙에서만 개혁개방이 시작된 이래 약 12년간에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한 출국자 수는 약 136만명으로 그 가운데 이민이 80여만명, 유학생이 약 30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진출국은 미국, 일본, 카나다, 오스트리아, 유럽 등이다. 그리고 이들을 또 지역별로 분류해 보면 전통적으로 최대의 화교 송출지인 광동성에서는 개혁개방 직후인 1980년 1년간에 4만2천명이 세계 60여개 국으로 출국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미국이 1만6천명, (전체의 38%), 카나다에 1만1천명 (26%)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이 성에서는 매년 이민자 수가 약 4만명

12) 같은 책, 97-102面

13) 可兒弘明, 游仲勳, 「華僑, 華人」(日本, 東方書店, 1995), 83-86面

14) 홍콩인들은 1990년부터 매년 약 6만명 정도가 카나다, 호주, 미국 등지로 이주하고 있다.

49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에 달하고, 1981-1991까지의 이민자는 44만명으로 이는 같은 시기 중국 전체 이민자 총수의 57%를 차지하고 있다.¹⁵⁾

< 신화교 현황 (1970년대 중반-1980년대 말) >

이민지역과 (이민자 수)		출신지역과 전출인원
북 미	미 국 (80만명)	중국(10만), 대만(10만), 홍콩(10만) 인도지나 화인(10만)
	카나다 (20만명)	중국(5만), 대만, 홍콩(수만명) 인도지나 화인(12만)
	프랑스 (20만명)	중국(5만), 대만(수만) 인도지나 화인(12만)
	영 국 (10만명)	중국, 대만, 홍콩 (각각 수만) 인도지나 화인 (10만)
	네델란드, 이태리 스페인 (수만명)	
	호 주 (18만명)	중국 (1만), 대만 (1만), 홍콩(6만) 인도지나 화인 (10만)
	뉴질란드 등 (수만명)	
	브라질 (5만명)	주로 중국과 대만의 신이민
	베네수엘라, 페루 (각 수만명)	
총 계	약 160-180만명	중국대륙 신이민 (30만), 대만신이민(20만) 홍콩신이민(30만), 인도지나 화인(80만)

<출전> 「華僑與華人」(1991년 제2기), 28面

游仲勳 編著,「華僑, 華人經濟」(日本, ダイヤモンド社, 1995)에서 재 인용

3. 중국의 화교정책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계들은 일반적으로 '炎黃子孫'이라고 하는 특유의 민족적 일체감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민족적 뿌리를 강하게 간직해 오고 있기 때문에 본국의 별 다른 정책 없이도 이들의 민족적 단결이나 또는 민족적인 일체성의 유지는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화교들의 내재적 민족의식과는 별도로 중국정부가 이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단결이나

15) 개혁 개방이후의 중국인들의 해외이주는 중국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의 영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游仲勳, 「華僑, 華人經濟」, 앞의 책, 32面

또는 현지에서의 위치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이들에 대한 민족정책이 가지는 의미 또한 대단히 크다. 특히 중국이 최근의 개혁개방과정에서 서방 선진국들과의 광범한 교류 협력을 열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해외화교들의 모국에 대한 도움은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도 중국정부의 해외화교들에 대한 정책이 가지는 현실적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가 해외의 자기 민족집단에 대한 정책은 시기별로 몇 단계로 나눠 살필 수 있다.

먼저,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긴 시기 가 있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고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이른바 ‘화교정책’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또 정보가 상호 교류되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이 살던 사람들의 일부가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조차 극소수였으며, 설령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단순히 문명세계에서 벗어나 있는 ‘外化之民’ 정도로 취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외 이주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다.¹⁶⁾

두번째, 자기 민족집단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을 처음으로 자각하던 시기의 정책이다. 이 시기에는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이들에게 벌을 가하가 하면 해외이주를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항 금지 정책을 편다.

그러나 청대에 이르면서 해외로 이주 해가는 사람들이 눈에띄게 늘어나자, 정부로서도 이를 그냥 방관만 할 수는 없게 되고, 따라서 이들의 해외유출에 대해 공식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당시는 외국이나 외국인들에 대한 의식이 다분히 적대적인 것으로 단순화 되어있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함께살던 사람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들은 바로 자기들에 적대적인 다른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따라서 자기들에 대해서는 피해를 끼치는 부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청조 順治時代(1644-1661년)의 ‘大清律’은 ‘관료, 군대 내지는 공민들이 마음대로 외국에 나가면 ---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보고 처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보고, 이들은 결국 외국과 상통하여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최초로 나타난 해외 이주자들에 대한 태도이며,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조 말 대량의 중국인들이 이른바 ‘豬仔’로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자 1860년 처음으로 조

16) 陸培春, 앞의 책, 141面

17) 같은 책, 141面

정에서도 하는수 없이 세계 각국에 널리 퍼져 있는 교포들을 상대로 화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조직적 화교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⁸⁾

그 후 신혜혁명의 지도자 孫文은 혁명을 위해 세계 각지의 화교들과 자주 접촉했을 뿐 아니라, 화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 손문이 임시대통령이었을 때에는 해외화교들을 중시하는 정책을 실시, 중화민국의 잠정헌법에도 참의원에 6명의 화교 의원을 받아들여 국정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1921년, 손문이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광동정부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외화교들을 위한 ‘華務局’도 설치하였다.

1926년 10월에는 국민정부에 華務委員會가 설치되어 화교들의 거주국에서의 평등한 대우를 위하여 노력할 것. 조국에 공부하기 위해 되돌아 오는 화교자제들을 위하여 편리를 도모할 것. 화교들이 조국에 되돌아와 사업하는 것을 보호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책대강이 결정되었다.

중일전쟁 때는 화교들이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중국측의 ‘교무’ 활동도 활발했다. 1946년 말 국민당정부는 남경에서 화교대표 40여명도 포함된 국민당대회를 열어 헌법을 제정하는데 여기서는 해외화교들의 거주국에서의 권익과 화교경제의 보호, 화교 교육 지원 등이 명문화되어 헌법에 포함되었다.

1949년 탄생된 중국 공산당 정부는 화교들의 그 동안의 공적을 중시, 중앙화교사무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된 화교정책을 실시했다. 신생 중국이 표방한 대화교정책의 기본은 해외화교들의 조국과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었으며, 그 밖에도 중국의 근대화와 통일, 중국의 대외 영향력의 확대, 외국과의 우호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교, 귀국 화교들과 재외화교들의 국내에 살고 있는 가족(僑眷)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 등이었다.

중국정부의 화교정책의 기본원칙은 이른바 ‘16字原則’으로, ‘一視同仁, 不得歧視, 根據特點, 適當照顧’다. 즉 모든 것을 동등하게 보고, 차별하지 말며, 장점을 중히 여기면서, 잘 돌봐주라는 것이다. 이 원칙에 의해서 많은 화교관계의 조직이나 단체가 생겨났는데 國務院 華僑辦公室 관할아래 華僑大學, 北京華僑補習學校, 그리고 辦公室의 지도아래 있는 화교들을 위한 中國新聞社, 華聲報社, 深圳特區華僑城 등이 운영되었다.

1966부터 10여년 간은 중국대륙을 휩쓴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화교관계 조직이나 단체의 활동이 상당기간 정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에는 다시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과거의 소극적이던 화교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문화혁명의 여파로 일시 중단했던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 등의 단체활동도 재개되었다. 문화대혁명의 혼란기 이후 중국 정부는 화교, 화인들의 역할을 다시 재평가하게 되었고, 천안문 사건 이후 서구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던 시기에는 해

18) ibid.,

외화교들이 측면에서 중국을 크게 지원하기도 했다.¹⁹⁾

이렇듯 중국은 근대에 들어서부터는 해외화교들에 대한 일관된 우대정책을 유지시켜 왔고, 이러한 입장은 1949년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일시적인 혼란은 있었으나 대체적인 기조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지속돼 왔다. 중국의 재외화교들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지도자들의 언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인용한 孫文의 경우는 해외화교들을 '혁명의 어머니'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공산혁명 이후 周恩來의 경우도 화교에 대한 찬사는 변하지 않았다. 특히 주 은래의 경우는 버마에 살고 있던 화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광범위한 재외교포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버마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이미 수세대에 걸쳐 여기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버마도 중국과 같이 외국 침입자들의 탄압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양국의 역사에서 우호관계가 단절되고, 따라서 교포들이 여기에 있으면서도 여러 외부 원인들에 의해서 곤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두 나라는 다같이 독립을 획득, 우리들 양국의 우호관계는 형제와도 같은 우정의 기초를 한층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 교포들의 버마에서의 지위는 독립한 버마 정부의 후의에 힘입어 크게 신장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버마 정부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 교포들이 버마에 건너와 거주하게 된 것은 근년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수세기에 걸친, 장기체제의 결과 영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그 가운데서는 버마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후 이러한 교포들은 점점 버마 국민이 되어 갔습니다. 따라서 버마와 중국 두 나라는 친척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마 인민은 중국인민을 '파우파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동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버마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을 동포로 보고, 친척으로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우정은 버마 인민과 중국 인민들 사이가 진정한 형제자매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버마에 살고 있는 동포의 대부분은 중국 남부 출신입니다. 버마는 열대국이기 때문에 교민들은 버마의 생활습관에 익숙하기 쉽고, 적응 또한 용이했습니다. 서로의 접촉이 오래되면서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通婚도 용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버마인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과 피가 통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버마와 같은 친척국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조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 네팔, 인도 등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민들 간의 관계를 통하여 평화공존의 씨앗을

19) 같은 책, 142-143面

뿌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평화5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부터 우리 동포와 베마인들 관계에 있어서 그 씨앗이 뿌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동포와 베마의 친구들 사이의 결혼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나 친척이 베마인들과 결혼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친척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는 축복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제해 있는 이상, 당연히, 거주국의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회생활에서는 거주국 인민들의 풍습습관, 종교, 신앙을 존중해야 합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우정관계를 수립, 더욱 친척관계를 맺어가야겠지요.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장기적으로 당지에서 체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동시에 사이가 좋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교포 여러분들에게 거주국의 법률 존수, 및 풍습습관, 종교신앙의 존중을 호소해 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은 다른나라의 손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지적한 정부의 호소를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주지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보다 원만하게 될 것입니다. 교포 여러분들 가운데는 체제가 장기화되고,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여 베마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로, 그리고 거주국의 법률에 따라 이곳의 국적을 취득한 이상, 당연히 베마의 공민이 되고, 이미 중국의 공민은 아닙니다. 중국정부는 화교 이중국적문제는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전부터 언명해 왔습니다.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선택한 것이라면, 그리고 당지의 법률에 의해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중국공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경우, 그들은 동포들과 중국정부의 멸시와 차별을 받아야 될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친척이 된 것인데, 친척이 되어서 무엇이 나쁨니까.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꼭 딸을 키워서 시집보낸 것과 같습니다. 시집간 딸은 당연히 친정 사람은 아니지만, 친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가 시집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남자의 경우는 데릴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지요. 광동, 북경에 이런 습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방에서는 이런 종류의 혼인을 '초서혼'(招婿婚)이라고 부릅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도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베마로서는 자식을 늘리는 것이 되며, 중국측에서 보면 새로운 친척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포가 베마 국적을 선택한 이후로 중국정부는 여러분들을 훌륭한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국 교민들은 반드시 거주국의 언어와 문자를 가능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될 때 비로써 직접적으로 감정을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업

을 하기 위해서도 몇마디의 벼마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고 힘써 학습해야 합니다. 중국인들은 외국어를 배우는데 곤란은 없습니다. 다만 보수적이고, 나태해서 배우지 않을 다름입니다. 이것은 또 일종의 대국주의 탓입니다. 우리들은 현재 쇼비니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하여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이 옳고, 다른 사람들은 바보 취급하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우리들은 쇼비니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들은 우리나라가 크다고 자만에 빠지는 대국주의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국내의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도 우리들 漢族은 대민족이기 때문에 大漢族主義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들과 군중들 사이에서는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다른 사람들을 경시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종류의 개인적 관료주의에 반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종류의 쇼비니즘에 반대하는 것은 즉 유아독존에 반대하는 것 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나는 여기서 특히 교포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말한 유아독존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겸손하고 신중함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벼마와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면에 서도 벼마 국적을 선택, 벼마 국민이 된 분들이 계시다면 그 분들은 이미 화교단체에 참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교와 친구 친척 간에는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정을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떨을 시집보내거나, 자식을 데릴사위로 보내놓고서도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자기집 식구로 생각, 선을 구획하지 않고서는 친정과 시집의 어느 쪽에서도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를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와의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벼마에 살면서도 여전히 화교의 신분을 계속하는 사람은 벼마의 국민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화교 나름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교민은 벼마의 정치활동에 참가해서는 안됩니다. 교민 내부에서, 그리고 벼마 인민들과의 왕래는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활동에 참가해서도 안됩니다. 그들은 정당, 선거, 벼마의 일체의 정치조직의 그 어디에도 참가해서는 안되며, 명확한 선을 끄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해외화교사회에서는 공산당 내지는 그 밖의 정치적 조직 활동을 하지 않는 원칙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파에 참가하고 싶으면 귀국한 후에 참가하면 좋을 것이며, 거주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안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주국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게 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비로서 화교는 거주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²⁰⁾

위의 연설문은 지금부터 약 40여년전인 1956년의 것이기는 하나, 주은래 수상의 생 각은 현재의 중국 정부의 해외화교에 대한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적 인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해외화교들에 대한 정책을 정리하면 다음 몇가지로 이를 요약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거주국에서의 화교들의 생활의 안정,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화인들의 거주국의 국적취득, 거주국에서의 봉사를 권장하는 입장을 일관하여 견지하고 있다. 화교들에 대해서는 ‘落葉歸根’보다는, ‘落地生根’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해외의 화교들에게 대해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현지국적의 취득을 권장하는 정책을 취해 왔고 1980년에 제정한 중국 최초의 국적법에서도 이런 원칙에 따라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음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정부의 명확한 입장에 따라 1980년대에 들어 해외 중국계의 국적문제는 거의 해결을 보게 되고 화교들의 현지 국적 취득율은 거의 90%대로 상승했다.²¹⁾

이렇듯 거주국의 국적취득을 모국 정부가 권장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게서는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든 정책이다. 가급적이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모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하여 중국의 입장은 전혀 상이하다. 중국은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아면 주거지의 국적을 취득하여 그 나라의 국민으로써 떳떳하게 정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또 중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인들의 거주국 국적취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중국은 외국에 살면서도 여전히 중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화교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권리보호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인 신분으로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당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힘쓰는 한편으로 만약 이들의 권리가 거주국에서 제대로 보장 될 수 없다고 판단 될때는 모국으로의 송환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도 행사하고 있다. 1965년의 인도네시아에서의 반화인 폭동, 70년대 말 베트남에서의 화인들의 박해가 발생했을때 중국 정부는 화교 난민들을 귀국시켜, 국내에 정착시킨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둘째, 중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화교들이라도 거주국과 거주국의 법률을 존중하고, 거주지의 사람들과 우호관계를 심화시켜, 장기간에 걸쳐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중국 정부는 화교들의 경우 가급적이면 현지의 정치적인 문제를 외면함은 물론 거주국의 법률, 문화전통, 풍습 등을 제대로 지켜서 그곳 생활에서의 유리감을 줄이고 그곳 주민들과의 거리를 단축 시켜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한다. 그러한 정책의 일

20) 같은 책, 144-150面

21) 朱炎,「華人 ネツワ-クの秘密」,(日本, 東洋經濟新報社,1995),15面

한으로 중국은 해외교포들이 거주국에서는 모국인 중국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조직과의 연계 활동 또한 엄격히 반대하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단지 현지 법률의 울타리 속에서 생활하며, 만약 모국의 정치단체에 참가하려면 귀국해서 그러한 활동에 참가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중국 정부는 해외화교들의 현지화, 거주국 국적 취득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 모두에게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중화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일체감을 고양시키기 위한 광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²²⁾ 세계 어디에 사는 중국계이든 간에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의 중국 혼이나 민족의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견지될 것을 바라는 것이 중국측의 대외 교포들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현재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중국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국적의 변경에는 대단히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일체성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음은 우연이 아니다.

넷째, 해외교포들의 '조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을 기대하는 측면이다. 많은 교포들이 공식적으로는 외국인이기는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血濃於水)라는 중국의 속담대로 '조국'의 경제발전을 바라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으로서도 이들의 본국에 대한 기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특히 대외개방 이후 화인들의 투자 및 기부는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서두루던 중국으로서는 필요불가결한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에 교포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대정책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1950년 11월에 '토지개혁에서 화교들의 토지재산에 대한 처리판법'을, 55-57년에는 '화교들의 국유 황산황지 사용신청에 관한 조령', '화교의 국영투자공사 투자에 관한 우대판법', '화교의 학교건설과 경영 자금원조에 관한 판법' 등의 특별 조령이나 법률을 제정하여 해외교포들의 모국 투자 내지는 국내 귀국화교들의 투자환경 개선 등에 힘써왔다.

다섯째, 중국은 국내에 있는 화인, 화교 연고자를 우대하고 있다. 중국 국내에는 귀국화교가 약 90만명, 화인, 화교들의 중국내 가족(華眷)들이 대략 3천여만명 정도이다. 중국정부는 이들 귀국화교나 화인, 화교들의 가족에 대해 상당기간 차별과, 억압을 가해 왔다. '문혁'시기 소위 '해외관계복잡론', 혹은 '화교복잡론' 등의 명분으로 많은 귀교와 교권들이 박해를 받았다. 공산당 입당이나, 해방군 입대, 결혼에서의 차별, 토지나 재산의 몫수, 해외와의 통신 간섭 등도 있었다. 화교들의 습관이나 언어, 사고방식을 부르조아적 사고라고 매도하는 등으로 계급적인 탄압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귀교나 교권들에 대한 차별은 '문혁' 이후 상당 부분 시정되었다. 교판, 중공 중앙조직부, 공안

22) 王主 편저, 1面

부는 귀교, 교권들에게 대해서 가해졌던 그때까지의 정치적 판정가운데 60만건 가까이를 재심하여 그 가운데 6만4천5백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명예회복을 하기도 했다.²³⁾

이런 상황에서 1990년9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5차회의에서 제정돼 다음해부터 시행된 「歸僑僑眷權益保護法」은 중국의 교포정책을 크게 진전시켰다. 전문 22개조의 이 법률은 현 시점에서의 중국의 화교문제에 대한 태도가 집약되어 있다.

이 법률은 ‘귀교, 교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국정부의 화교들에 대한 일관된 방침의 재확인하고 있다.

여기서는 ‘화교’, ‘귀교’, ‘교권’ 등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모든 차별의 폐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포들에 대한 인민대회대표 의석의 특별배정을 비롯, 귀교와 교권들에 대한 사단설립권(6조), 귀교들에 대한 농장이나 임업장 설치와 경영 원조(7조), 화교와 교권들의 공상업 자본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법적인 보호(8조), 그리고 이들의 공익사업(교량, 도로, 노인ホーム, 유치원 등의 건설) 경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협조와 법적 보호, 세제면에서의 우대(9조), 가옥사유의 보호(10조), 귀교학생, 귀교자녀 및 화교의 중국 국내 진학, 취직 배려(11조), 화교로부터 송금된 돈의 보호(12조), 유산상속의 보장(13조), 국외 친구들과의 왕래, 통신 보장(14조), 친척방문을 위한 출국의 보장(16조), 국외 정착 보장(17조), 유학 보장(18조), 합법적 권리가 침범되었을 경우 관계기관,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20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귀국한 교포들과 그들 가족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명문화 했다.²⁴⁾

4. 결 론

과거 단순하게 중국의 고향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일시적으로 생활기반을 마련하여 살아가고 있던 해외중국인 즉 화교들은 이제 변화된 위치와 여전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모색을 본격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화교들은 이미 고향을 잊고 먼 이국에서 망향의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초라한 실향민도, 또 먹고 입을 것을 제대로 해결하

23) 周南京主 編, 「世界華僑華人詞典」,(北京大學出版社, 1993), 174-175面

24) 중국의 해외화교들에 관한 가장 중요한 기관은 「國務院僑務辦公室」(僑辦)과 「中華全國歸國華僑聯合會」(僑聯)가 있다. 그리고 이밖에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인 「全國人民代表大會華僑委員會」(1983년 6월 설치), 1949년 10월,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華僑事務組로서 발족, 1988년 6월 그 조직이 개편된 「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華僑委員會」 등도 있다.

지 못해서 노예같은 생활을 이어가는 가난한 ‘화공’들 또한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거주국의 중국인 차별대우 정책의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생활해 가는 단순한 마이놀리티이지도 않고, 또 오직 그들의 모국인 중국의 향배만을 지켜보면서 보다 부강하고 강력한 모국만을 유일한 꿈으로 생각하던 나약한 해외교포는 더 더욱 아니다.

이제 그들의 상당수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는 멋벗하고 실력있는 현지 국민이며, 이제는 그들의 모국인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바라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편에서 모국에 대한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는 자랑스런 후원자들이기도 하다.

이렇듯 거주국에서 나름대로 생활의 기반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축적한 재외 화교들은 이제 또 다시 다양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중에서도 크게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계 인구들의 범 세계적 연대를 위한 노력 즉 ‘중화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중화인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에 의해 상당한 성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갖는 의미는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현재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국계 화교집단들의 움직임은 이미 그 어느 한 국가나 한 지역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초국가적이고 초지역적인 제3의 구심점을 찾아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 화교 역사상 대단히 의미있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제1회 世界華商大會’(World Chinese Entrepreneurs Convention)가 1991년 8월 10-12일까지 싱가폴 중화총상회 주최로 싱가풀에서 열렸고 1993년 11월 22-23일에는 제2회 대회가 홍콩 中華總商會 주최로 홍콩에서 열렸다. 여기서는 세계 22개국과 지역에서 1천명의 ‘華商’들이 참가하였다.²⁵⁾ 이 대회의 발기인의 한 사람이었던 李光耀 전 싱가풀 수상은 이 자리에서 ‘華族’(Ethnic Chinese)의 세계적인 경제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우선 각종 정보의 네트워킹 구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나와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있게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대회에서 말하고 있는 ‘華’란 ‘chinese’로, 이는 해외에 살고 있는 화교나 화인들 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중화인 즉 중국계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해외에 살고 있는 화교, 화인들은 물론 중국대륙과 대만 홍콩 등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까지를

25) 제1회, 제2회 대회의 지역별 참가자를 보면, 제1회 대회 때는 총 참가자 768명 중 아시아가 622명(싱가풀 147명, 타이 74명, 일본 58명, 홍콩 55명, 인도네시아 50명, 말레이지아 44명, 대만 43명, 중국 41명, 필리핀 40명), 미주 59명(미국 55명, 카나다 3명, 팜 1명), 구주 59명(영국 23명, 프랑스 21명), 아프리카 28명이었다. 제2회 대회에는 총 848명이 참석, 이들의 분포는 아시아 742명(홍콩 248명, 싱가풀 114명, 중국 61명, 말레이지아 59명, 호주 58명, 일본 50명, 타이 48명, 부르네이 40명), 미주 41명(카나다 22명, 미국 19명), 구주 58명(영국 33명, 프랑스 15명), 아프리카 7명 등이었다.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중화세계를 말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화’란 이미 과거와 같이 그들의 모국인 중국을 중심 축으로 하는 중국계들이나 그들만의 단결의 차원을 넘어선 중국 본토와 그곳의 중국인들까지를 그 내용 속의 한 부분으로 한 새로운 ‘제3의 華’와 ‘제3의 통합적인 민족의식’을 전재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중국내의 중국인들은 물론 해외에 널리 퍼져있는 해외 중국인 집단들은 이제 특정한 한 나라에 국한된 귀속의식이 가지는 한계성을 강하게 느끼고 이러한 한계성을 합리적으로 극복하는 현실적 대안의 하나로 ‘화의 세계화’를 통한 ‘제3의 華’의 세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3의 華’의 논리는 여전히 추상적이며 제한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성도 분명하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한계성을 그들 화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한계성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가능한 영역에서의 이의 구체화를 모색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보다 뚜렷한 모습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구축과 이를 통한 경제적인 상호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이다.

중화세계의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 앞에 점점 가까이 닥아서고 있는 ‘제3의 華’운동이 가지는 무게나 색깔은 아직도 그렇게 분명치는 않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움직임이 단순한 ‘中國’지향성을 초월한 ‘中華’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또 이 움직임은 가까운 장래 세계 경제 특히 동아시아 경제에 상당한 무게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일대를 중심 무대로 하여 실질적인 무게를 더해가고 있는 중화경제권의 향후 행보는 그것이 가지는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제3의 華’운동의 구체적 내용의 하나로써 그것이 中華人들과 中華世界의 향후의 명운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보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세계 중국계 인구 분포

지역	국명	인구(만명)	전체인구비(%)	통계연도
아시아	중국	1,133,680,000		90
	대만	20,215,000		90
	홍콩	5,580,000		91
	마카오	513,000		91
	싱가폴	2,100,000	76.0	90
	말레이지아	5,280,000	30.5	90
	인도네시아	6,500,000	3.6	
	타이	6,000,000	11.0	91
	필리핀	820,000	2.0	91
	브루나이	50,000	23.0	
	미얀마	850,000	2.2	
	베트남	1,000,000	1.5	
	캄보디아	300,000	4.6	
	라오스	160,000	0.23	91
	일본	150,000	0.08	90
	한국	23,000	0.07	90
	북한	10,000	0.06	
	인도	120,000	0.01	
	파키스탄	3,600		91
	스리랑카	3,500	0.2	91
	방글라데시	700		91
	네팔	200	0.16	91
	아프가니스탄	100		
	사우디아라비아	30,000		88
	터키	60,000	0.06	88
	요르단	100		91
	아랍연방	150	0.02	89
	쿠웨이트	200		89
	이스라엘	100		90
	바레인	30		91
소계(아시아)		1,183,449,700		

61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학교집단

북 미	미 국	1,645,000	0.6	90
	카 나 다	660,000	2.3	91
	멕 시 코	20,000		
중 미	쿠 바	6,000		91
	니카 라파	1,000		
	흔 두 라스	1,000		91
	코스타리카	20,000		91
	파 나 마	100,000	1.4	
	파 테 말라	15,000		
	엘 살 바돌	900		91
	아 이 티	50		91
	도 미 니카	6,500		90
	벨 리 제	1,200		91
	트리니다드도바코	8,000	1.7	
	쟈 마 이카	20,000		90
	바베이도스	60		
	바 하 마	300		90
남 미	네델란드영(안틸레스)	3,100		
	소계(중북미)	2,508,110		
	콜 롬 비아	4,000		
	베네쥬엘라	15,000	0.3	
	에 콰 돌	15,000		
	페 류	500,000	0.3	91
	브 라 질	100,000	0.07	91
	볼 리 비아	4,000		
	칠 레	13,000		90
	파 라 파이	6,000		90
	알 젠 틴	20,000	0.1	90
	우 루 파이	350		89
	가이아나, 수리남	16,000	3.0	90
	소 계 (남미)	693,350		

유럽	영국	230,000	0.35	
	프랑스	150,000	0.3	91
	네델란드	100,000	0.5	
	벨기	12,500	0.1	91
	룩셈블그	360	1.6	90
	아일랜드	1,000		90
	독일	40,000	0.03	90
	오스트리아	20,000	0.05	90
	스위스	5,000	0.1	91
	이태리	40,000	0.02	91
	스페인	5,000	0.01	91
	폴투칸	4,700	0.03	91
	그리스	100		91
	스웨덴	12,000	0.1	90
	덴마크	6,000	0.08	91
	노르웨이	950	0.02	91
	핀란드	200	0.06	
	구소련	300,000	0.1	
	폴란드	100		
	헝가리	3,000		
	소계(유럽)	930,910		
오세아니아	오스트레리아	454,000	1.7	91
	뉴질란드	35,000	1.0	91
	나우르	1,400	3.5	87
	파푸아뉴기니아	6,800		90
	피지	8,000		90
	다히티	18,000	20.0	90
	바누아트	1,000		
	서사모아	1,100	5.0	90
	마샬군도	120		90
	팔라우	70		86
	소계(오세아니아)	524,490		

63 중국인의 민족상황과 화교집단

	모리셔스	35,000		90
	마다카스칼	14,500		
	남아공화국	25,000		91
	레위리옹	14,300		90
	나이지리아	2,000		90
	코트디브알	200		90
	나미비아	120		
	레소토	1,000		90
아	이집트	110		
	알제리아	2,000		
	리비아	350		
	토고	30		
프	에치오피아	55		
	가나	500		90
	앙골라	250		
리	탄자니아	510		
	스와질랜드	90		90
카	말라위	50		90
	세이셸	650		
	모잠비크	200		
	보츠와나	25		
	모로코	20		
	지부티	20		
	카멜룬	10		
	자이레	200		
	니제르	20		
	기니아	150		
	우간다	80		
	소계 (아프리카)	97,440	0.02	

<출처> 李原, 陳大障 編著, 「海外華人及其居住地概況」(中國, 中國華僑出版公社, 1991) 과 「華僑經濟年鑑」(臺灣, 1991) 등을 종합 정리